

공관장 신임장 수여식

국가를 대변하는 외교관의 일은 막중합니다. 해외의 많은 경험과자료가 모이고 전달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제가 임명장을 드리면서 절만 꾸벅 하기가 민망했습니다. 인사말 하면서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라고 하니깐 너무 길어서 ‘축하합니다’로 바뀌어서 말했는데 바라는 자리가 아닌 사람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서 나중에 우물우물 넘어갔습니다.

지금 후회가 됩니다. 모두에게 축하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축하 받은 자리도 있고 조금 못한 자리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큰 성공에는 ‘좋았다, 나빴다, 됐다, 안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행복해집니다.

미국과 일본을 다녀왔는데 대사자리가 굉장한 자리였습니다. 국가를 대신하고 대통령을 대신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국가의 이미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본국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듭 새삼 실감했습니다. 어렸을 때 외교관이 되고싶었습니다. 그런데 상업고등학교를 가게 되서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교육 측면에서 지금 외교관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세계화 시대여

서 외교관이 보람이 있긴 하지만 불편도 따를 수 있습니다. 기쁘게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마무리 말이 있어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제도 개혁할 때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후진국이라도 좋은 제도가 있게 마련입니다. 연결된다는 것, 연속성 있게 관리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념해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국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 창피스럽지 않도록 국내에서 잘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염치없거나 사리에 닿지 않는, 난처한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임자를 위해 데이터베이스와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인사 DB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후임자를 위해 자료나 시스템, DB등을 잘 관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후임자가 어느 미장원을 가면 좋은지에 대한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잘했지만 다른 평가를 받아 마음이 상했습니다. 국정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아 걱정도 됐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후 한 번도 내 뜻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신문이 한 번도 잘 써주지 않았습니니다. ‘된다. 독불장군이다. 불안하다, 실수다. 또 실수, 또 사고’ 라고 보도했습니다. 대선에서 역전 세 번하고 기적 같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운명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실상황이 안 그렇고 성공할 수 있겠나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국민들이 가야할 길을 원하고 있었고 시대흐름 잘 맞아 성공한 것입니다. 저도 운이 좋아 타이밍 맞아서 됐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원칙 가까이 하면서 가능한 타협 가능한 쪽이 있습니다. 반전의 반전을 할 것입니다.

대미 외교에 대해서 지지자들은 실망하고 나머지는 안도했습니다. 큰 틀에

서 사심 없이 멀리 내다보고 가면 저도 잘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대한민국호는 잘 갈 것입니다.